

## 에스라 6장 강해

### 6장 본문이해

1. 성전개건에 대한 바사정부의 반응(6:1-2)
  - 1)문서기록조사(6:1-2)
  - 2)왕의 조서(6:3-5)
  - 3)다리오 왕의 반응(6:6-12)
2. 성전완공과 봉헌(6:13-18)
  - 1)성전완공(6:13-15)
  - 2)성전봉헌(6:16-18)
3. (귀환 후) 첫 유월절을 지키다(6:19-22)

사람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어려운 일 환경을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좋은(선한: 성경에서 '선한 일' 은 하나님의 일의 뜻함)은 절대로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며 때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이루어진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수고하라” 는 말이 있다.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 은 성경적이다. 심지어 앉으면서 거두겠다는 사람들, 수고하지 않고도 앉고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을 불한당이 라 부른다(예: 조폭, 강도, 보이스 피싱 사기꾼).

선을 행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은 '낙심(落心)이요 들제는 '중도포기' 이다. '낙심'(落心) 은 떨어질 낙(落), 마음심(心)의 합성어이다. 즉, 마음을 잃는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good) 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듣지 못하겠느냐” (창 4:7) 고 말씀했다.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 앞에 바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만 그 결과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주변 사람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좋은 것, 선을 심는 것이다. 성경에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다.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를 나

타내는 '카이로스' 이다.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인 '카이로스' 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한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은 가난이나 전쟁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누가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폄박하거나 무시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지쳐서 쓰러지지만 앞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를 거둘 날이 있을 것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6:4)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6:6)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6:18)

우리 매일의 삶은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산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명심하자! 사랑의 씨, 용서의 씨, 화평의 씨, 절제의 씨, 온유의 씨, 자비의 씨, 물질의 씨를 기회있는대로 심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30, 60, 100 배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

3-5장에서 보았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유다백성들이 성전공사를 하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공작으로 결국 16년간 공사는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마리아인들은 바사 왕에게 조서를 보내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유다백성이 강대해지고, 왕을 배반할 것이라는 모함을 했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는 조서를 내려 성전건축 중지를 명했고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성전건축 대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기 생활에 메달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았다.

학개선지자는 그 이유는 그들의 '우선순위' 가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했다. 돌아온 유다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건축' 이 먼저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은 분명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 용기를 내어 바사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는 각오로 스룹바벨과 유다지도자들은 성전공사를 재개했다. 바사 왕 보다 '하나님 우선순위' 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유브라데 서쪽을 책임지는 총독 닷드내는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써서 유다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성전을 짓는데, 실제로 옛적 고레스가 성전을 지어도 된다는 조서를 배린 적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6:1-2).

다리오 왕이 명을 내려 왕의 문서 창고에서(수도 수산 궁이 아닌 멀리 떨어진 메테 도(道) 악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됨) 왕이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내린 칙령이 발견되었고 비용조차 왕실에서 내리라고 사실을 발견하였다(6:2). 악메다 궁은 현재 이란에 있다. 메테인들이 지은 왕의 요새였다. 고레스가 B. C. 550년 메대를 정복했을 때 악메다 궁은 페르시아(바사)의 손에 들어갔다. 바사 왕들은 여름 열기를 피하기 위해 악메다를 여름 휴양지로 이용했다.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된 곳이 바로 여기였다.

찾은 고레스의 조서(고레스 왕 원년인 B. C. 539년에 작성)에 의거해 다리오왕은 성전재건을 명하였다(6:3-5). 명령에는 성전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6:6-7/성전건축 작업의 실제 진행과 감독을 유다총독과 장로들이 하도록 명함), 성전을 짓게 할 것이며, 제사 드리는 예물까지 주어서(6:5) 바사제국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 유다백성이 기도해 줄 것 까지 명했다(6:6-12). 유다를 포함한 지역의 총독인 닷드내는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성전재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토록 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유다지도자들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성전공사를 시작했을 때 마침 내 왕의 허락도 받았을 뿐 아니라 재정지원 및 기도부탁이라는 보너스까지 받았다.

## 1. 이스라엘 역사에서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네 번 지어졌다. 첫째는 모세의 성전이다. 모세가 지은 성전은 천막으로 광야에서 이동 가능하도록 조립식이었다. 모세의 성전은 광야 시내 산 밑에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갔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다. 구조는 모세의 성전과 비슷하지만 더 화려했고 고정된 건축물이었다.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지어졌다. 솔로몬 성전은 B. 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불타 없어졌다.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 예루살렘에 돌아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어진 성전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 당시 헤롯 왕(B. C. 37- B. C. 4)이 지은 성전이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을 개축한 것이었다. 로마제국에 의해 세움 받은 헤롯(유대인)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의 성전을 고쳐서 다시 화려하게 지었는데, 예수님때 이미 46년간 개축공사를 했고 그 후에도 계속 공사를 해 약 80년 정도 걸려 완공되었다. 헤롯의 성전은 완공된 지 6만에 제국을 대항하는 유대인을 제압하기 위해 로마제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1) 모세의 성전은 단순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전이였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이다. 언약관계로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였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방이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신혼여행을 하였고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사하여 주셨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2) 솔로몬의 성전은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신정정치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이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들만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지만 유다역사에서 보듯이 유다 왕들(8명을 제외하고)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다.

에스라 6장에서 완공된 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 완공된 성전을 말한다. 이 성전은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생활 후 돌아와 지은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전은 유다나라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배받는 이방 나라 왕의 허락으로 지어진 성전이였다는 점이다. 즉 이 성전은 모세나 솔로몬 성전과는 같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다나라도 독립된 상태가 아니라 바사제국의 통치아래 있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 성전부터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정치는 바사 왕이 하고 성전은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눅20:21) 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면서 또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더 좋을 수 있다. 역지로 사람을 개종시키지 않고 복음으로 승부걸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성전이다. 이 성전은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예수님은 헤롯성전에 오르셔서 장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고 하셨다(요2:18).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하셨다(행 2:1-4).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된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 2. 바사 왕 다리오의 조서

“이제 강 서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너희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머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대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지 않게 하라”(6:6-8)

스룹바벨이 성전건축을 방해하는 자나 바사 왕을 두려워 할 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죽을 각오로 성전공사를 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함께 하셨다. 고레스의 조서가 문서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공사를 적극 돕게 하셨다.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다리오가 성전건축을 재개하도록 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적극적으로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하셨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성전건축에 적극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유다백성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기도’ 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고레스 왕이 나뉠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본 것 같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사단의 손아귀에 잡히면 바로 교회에 핍박이 온다. 사단이 정치를 동원해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

다리오 왕은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그 집 기둥을 뽑아서 집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은 목을 메달아 죽이며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을 명했다(6:11).

믿음의 사람 스룹바벨은 학개 선지자의 도움으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공사를 재건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다리오 왕은 아무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비용까지 대어주었으며 자신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부탁까지 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결국 성전이 완공된다. 여기서 우리는 ‘신적섭리’ 와 ‘인간의 수고’ 가 이루어낸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된다.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단2:2)이는 우리 하나님이다.

14절에 ‘아닥사스다의 조서’ 가 포함되어 기록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왕으로 통치했다. 저자는 아마도 아닥사스다가 후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우호적으로 지원한 점을 기억하며 성전완공과 예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바사 왕들에게 감사하고자 그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 3. (스룹바벨) 성전 헌당식

다리오 왕의 조서 덕분에 스룹바벨의 성전공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드디어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행동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6:14-15).

다리오 왕6년은 B, C, 516년이고 이때는 B. 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이다. 유다백성들의 포로생활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까지의 기간인 것이다. “이 나라들은 칠십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렘25:11).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29:10)

70년 동안 유다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자유가 없었다. 정치적 자유, 상업의 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유가 인정되기까지는 포로생활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세상의 모든 성공, 자유, 풍성을 누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가정, 사회가 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사단의) 포로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다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되자 기쁘게 성전 봉헌식을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ksksla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6:16)

성전 봉헌식은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성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에 빠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가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두 돌비도 없었다. 언약궤도 두 돌비도 없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죄를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셨다.

신약시대에도 언약궤나 두 돌비가 없어도 오순절 임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성전은 거룩한 처소이다.

봉헌식에는 수소 일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드렸다. 물론 솔로몬 때 바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들은 속죄제를 드린 후 정식으로 반차를 정해서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시작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6:18).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열둘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오

직 베냐민과 유다(유다왕국을 이룬 두 지파)와 레위지파 소속의 백성들만 참석했지만 모든 지파를 대신해 제사를 드림으로 이 성전을 다시 한 번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대한 것 같다.

성전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제단에 있는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되었다. 지성소 앞에 있는 향로의 불도 꺼질 수 없는 기도의 불이었다. 이것은 순서를 짜서 계속 돌아가면서 번제와 분향을 하게 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예배와 기도회를 순서를 짜서 계속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키되”(6:19)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손들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노예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다. 유월절은 유대달력의 기준이었다. 신년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었기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또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출 12:1-4).

성전이 완공되자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하였다(6:20). 이 시점의 역사적 모델은 요시아 왕의 율법과 언약 갱신에 근거한 것이다(대하35:1-19). 열왕의 시대 이후로 유월절 절기는 가족적 절기에서 제사장적 직무가 중심이 된 절기로 변화되었다. 모세의 책에 의하면, 각 가정의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바쳐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국가체제로 바뀌면서 그 책임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로 옮겨왔다.

물론 이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바사의 정치적 지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므로 그들은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어린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새 사람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는 것보다 더 축복이 없다(엡2:1).

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자손들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모든 이방 풍속을 다 버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얻은 선교의 열매라 할 수 있다.

####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땡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떡교”(6:21).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무교절도 지켰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말하고 심판이 지나갔음을 말한다. 무교절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인도해내신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계속 지켜야 할 절기였다(출12:17-20). 또한 무교절은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앴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난했던 심령으로 돌아가려는 의식이다.

성전 봉헌이 끝난 후 스룹바벨은 굉장히 기뻐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전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기 때문이다. 22절은 바사 왕이라 하지 않고 ‘앗수르 왕’ 이라고 적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도 앗수르 왕이나 마찬가지로 완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움직이셔서 당신의 뜻, 당신의 백성을 이루시고 도우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번제도 율법대로 지키고, 유월절도 율법대로, 무교절도 율법대로 지켰다.

부흥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 에스라 6장의 토의질문)

1.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부와 직장과 교회지도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2. 국가와 지도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시민 불복종’ 에 동참해야 하는가?
3. 교회나 기독교관이 민간사업이나 활동에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협력이 부적절할 때는 언제인가?
4.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감사와 경배를 표현하는 창의적인 방식들을 찾아보라.